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6년 12월 9일(금)
- 담당자 : 남정수(010-6878-3064), 박진(010-6268-0136)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성명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광장의 위대한 촛불이 이룬 성과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즉각퇴진·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범죄자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마땅한 결과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을 요구하며, 전국 방방곳곳의 광장에 나선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이다. 촛불시민은 ‘명예로운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 국민을 기만하고, 당리당략에 근거하여 기회주의적 행태로 일관하던 정치권에 일침을 가하고, 탄핵소추마저 불투명하게 만들려는 저들의 계획을 포기시켰다.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다.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이다. 박근혜와 더불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촉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즉각 퇴진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다. 이는 국민과의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가 ‘즉각 퇴진’ 해야 할 이유를 국회가 명확히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촛불민심은 여전히 ‘즉각 퇴진’에 있다. 박근혜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

국정농단 정책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그 내각은 박근혜의 공범자들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경제를 망가뜨린 공범자 재벌은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를 연발할 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의 적폐들을 청산할 때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경영승계를 위해 눈감아왔던 수많은 재벌특혜 청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계약 폐기 및 한상균 석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중단,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민주주의 헌정유린 청산, 언론장악 시도 중단 등 박근혜 체제의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어야 한다.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즉각 퇴진’ 과 ‘적폐 청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의 성과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물로 전유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의 의지를 옹골게 반영한 심판으로 박근혜 정부가 유린한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의 촛불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장 내일(12.10) 열릴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은 촛불시민의 끝나지 않는 분노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절절한 열망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투쟁의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아직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오늘을 만든 촛불시민의 힘으로 더 큰 산맥을 넘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2016. 12. 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